The Korean Communications
in Statistics Vol. 10 No. 3, 2003
pp. 679-694

Development of the Index for Balanced Life by using Exploratory Data Anlysis

LuNa Byon[1], JungRan Kim[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Index of Balanced Life from the Korean life style. This paper presents How Koreans live for 24 hours a day, generally. The Index of Life Style is composed of necessary life, duty life and leisure life. Specifically, this paper considers moving time of activity between indexes of balanced life.

We suggest that there is a difference among the characteristics, i.e., a sex, week, state of student and region that are explained by analyzing the exploratory data. Thereafter we obtain the statistical inference from each characteristic table.

Keywords : index of balanced life, necessary life, duty life, leisure life

1. 서론

생활시간은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현재 생활의 실태를 파악 진단하여 생활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누적된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생활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전망할 수 있다. 시간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되어 있는 객관적 자원이지만 하루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축적될 수도 없는 자원으로서, 시간 자원의 사용은 기호와 가치, 생활양식의 차이가 반영될수 있으며 또한 사회변화의 지침요소가 될 수 있다. 시간사용을 파악함으로써 인간 행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일상의 생활행동에는 주기성과 같은 여러 규칙성이 존재하는데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생활시간의 분류는 연구목적과 학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김영숙, 2000) 본 연구에서는 1999년 9월 처음으로 우리 나라 국민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활시간조사를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하루 생활시간을 통계청에서 분류한 대분류를 토대로 필수 생활시간, 의무 생활시간, 여가 생활시간으로 분류하고 성별, 요일별, 연령별, 학생별, 지역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하루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1) Officer,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aejeon, 302-701, Korea.
E-mail : lnbyon@nso.go.kr
2) Professor, Statistical Training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Professional Administration, Daejeon, 305-703, Korea.
E-mail : jrkim67@nso.go.kr

균형생활지표로써 정의한다. 균형생활지표에 대한 필요성은 각각의 행동분류에 따라서 인구특성학적 요인들이나 국가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시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값을 지표화 하여 비교할 때 편리함과 공통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에서 서론을, 2장에서 생활시간조사 사례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3장에서는 균형생활지표의 정의와 생활시간조사 내용의 특성을 분석한다. 즉, 정의된 균형생활지표에 대해 인구특성학적 요인별로 차별화 되는가를 살펴본다. 이 때 균형생활지표를 생성하는 데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탐색이 필요하며, 추가로 통계적 추론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제언을 한다.

2. 생활시간의 이론적 배경

2.1 생활시간의 분류

생활시간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분류방법이다. 이것은 연구자의 분석목적과 연구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분류기준은 활동의 목적, 발생방식, 주체자, 필요도, 그리고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생활시간의 분류는 가능한 상세한 것이 그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소분류이고, 또한 조사결과를 의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활동을 목적에 따라 통합하는 영역의 분류(중분류나 대분류)가 필요하다(김선희, 1989). 일본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연구(大竹美登利 외, 1983)는 하루 24시간을 생리적 생활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적 생활시간, 사회적·문화적 생활시간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세분하여 총32개 영역의 시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Szalai(1972)은 생활내용을 96개의 활동으로 나누고 37개의 범주로 축소하여 분석하였다. Robinson(1977)은 크게 의무시간, 자유시간으로 나누고 다시 각각을 37개 영역으로 세분하고 또 각각을 더 세분화하여 생활시간을 조사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국민생활시간조사」(1996)는 생활시간을 4대 활동영역, 즉 생활필수, 노동, 이동, 여가행동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13가지의 세부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199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에서는 분류체계를 9개의 대분류, 51개 중분류, 125개 소분류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통계청, 1999).

2.2 생활시간조사 사례

시간활용연구에 관한 논문은 1913년 미국에서 출판된 「일하는 남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Bevans, 1913)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이후 정부 또는 연구소 차원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1969년부터는 NHK에 의해, 1976년부터는 통계국에 의해 대규모 조사가 정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외 캐나다는 1986년부터, 네덜란드는 1975년 이후, 노르웨이는 1970년 이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0여개국 이상에서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통계연수부, 2001a). 한편, 국가간 시간활용형태 비교를 위한 조사가 1960년 중반에 시도되었는데, 13개국에서 "다국가간 생활시간조사(Multinational Time use Study)"가 동시에 실시된 바 있다. 이런 시도는 1990년대에 다시 나타나는 데, "Harmonized European Time Use Survey"(HETUS)가 EUROSTAT에 의해 주도되어 유럽 18개국에서 1997년에 시험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곧 본 조사를 실시할 계

획으로 통합된 행동분류체계와 조사표를 개발중에 있다. 통계청에서 개발한 생활시간조사는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방법의 많은 부분을 HETUS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행동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이에 1999년 처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타당성과 방법론이 발표된 바 있다(손애리, 2000).

2.2.1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조사 방법

우리 나라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의 목적은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조사의 실시기간은 1999년 9월 3일 금요일부터 9월12일(일요일)까지 10일 가운데 2일간 정해진 날짜에 시간일지를 기입함으로써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10세이상의 국민이며,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1차적으로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9개도의 동부, 읍면부 25개 층별로 일반 가구수에 비례한 크기비례확률추출법을 적용하여 배분하였으며 각 지역별로는 최소 30개 이상의 조사구가 되도록 배분하였다. 각각의 층에서는 조사구 명부에서 시작점을 달리하여 계통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정된 전체 850개 각 표본 조사구에서 17,000가구가 선정되었으며, 만 10세이상 가구원은 46,000명이었다. 유효응답자수는 42,973명이었다. 평균생활시간의 추정은 인구수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평균과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통계청, 1999).

2.2.2 우리 나라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우리 나라 10세 이상 국민은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하루 평균 생활시간 중 10시간 18분을 수면, 식사, 세면 등의 개인유지 행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간은 3시간 43분, 가사시간은 1시간 56분, 이동시간은 1시간 35분으로 나타났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5시간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개인유지에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그 외의 행동분류(가사제외)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은 남자가 여자보다 1시간 52분을 더 할애하고 있지만, 가사는 여자가 남자보다 2시간 53분을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10세 이상)

(단위: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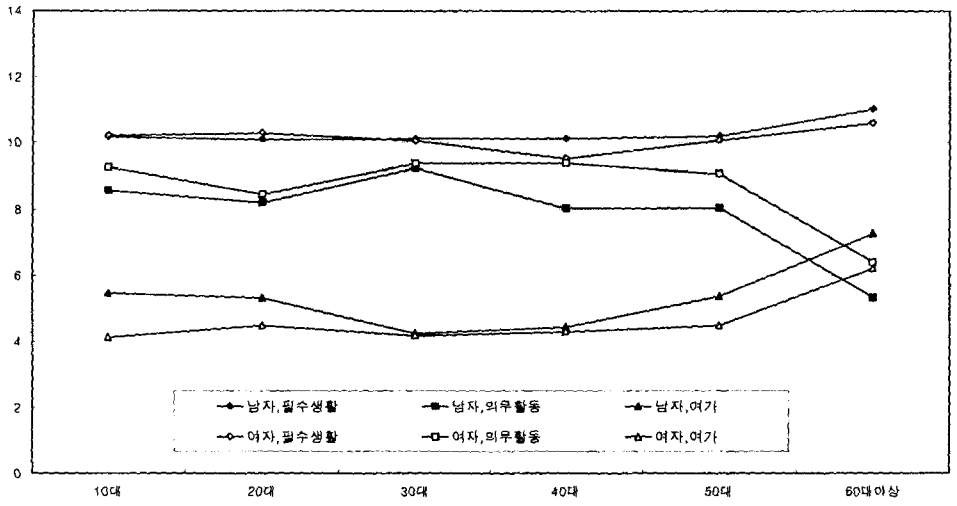
		필수생활	의무활동				여가
		개인유지	일	가사[a)]	학습	이동	교제및여가[b)]
전체		10.18	3.43	1.56	1.28	1.35	5.00
	남자	10.18	4.39	0.28	1.34	1.46	5.15
	여자	10.18	2.47	3.21	1.22	1.24	4.48

주: a)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 포함
b)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기타 시간 포함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그림 1)의 결과를 보면, 필수생활인 경우 40대의 여자에서 가장 적은 9시간 52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무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인 9시간 38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50대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남자의 경우는 30대에서 의무

생활에 가장 많은 시간 9시간 24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이후에는 남녀 모두 여가생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필수생활 또한 1시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재작성된 것이며, 통계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10세이상의 국민들이 하루의 생활을 각 행동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하루 평균 사용시간

3. 균형생활지표

3.1 균형생활지표의 정의

3.1.1 균형생활지표의 분류

우리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시간을 균형생활이라 정의하고 균형생활지표는 필수생활, 의무생활, 여가생활로 정의하고자 하며, 분류체계는 <표 2>와 같다. 세부항목들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행동 분류표(통계청, 1999)를 사용하였다.

<표 2> 균형생활지표의 분류 내용

종합지표	생활지표	세부항목
균형생활지표	필수생활	수면, 식사, 개인관리, 건강관리, 이동(상기 항목에 관련된 이동)
	의무생활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이동(상기 항목에 관련된 이동)
	여가생활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기타, 이동(상기 항목에 관련된 이동)

균형생활지표의 필요성은 우리 나라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시간 행태를 평균적인 종합생활시간으로 설명함으로써, 성별 혹은 연령별, 직업별 등등의 인구특성학적 측면과 간단하게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차후 국가별로도 생활지표에 대한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조정할수 있다면 이 또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본 절의 의의는 시간으로 나타나는 값들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정의하는 데 있다.

필수생활은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생활로써 수면, 식사, 개인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계청에서 구분한 건강관리 부분도 포함한다. 의무생활은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일, 학생은 학습, 주부는 가정관리 혹은 가족 보살피기 등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여가생활은 봉사나 친구들과의 교제 등이다. 그리고 각각의 생활 항목에는 해당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관련 이동을 포함하였다. 이동 항목의 분류는 본 연구와 통계청의 분류 항목과 구별되는 점이다.

3.1.2 성별, 연령별 균형생활시간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나라 사람들의 하루 24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활용, 즉 <표 2>에 근거한 균형생활시간은 <표 3>과 같다.

<표 3> 성별 평균 사용시간(1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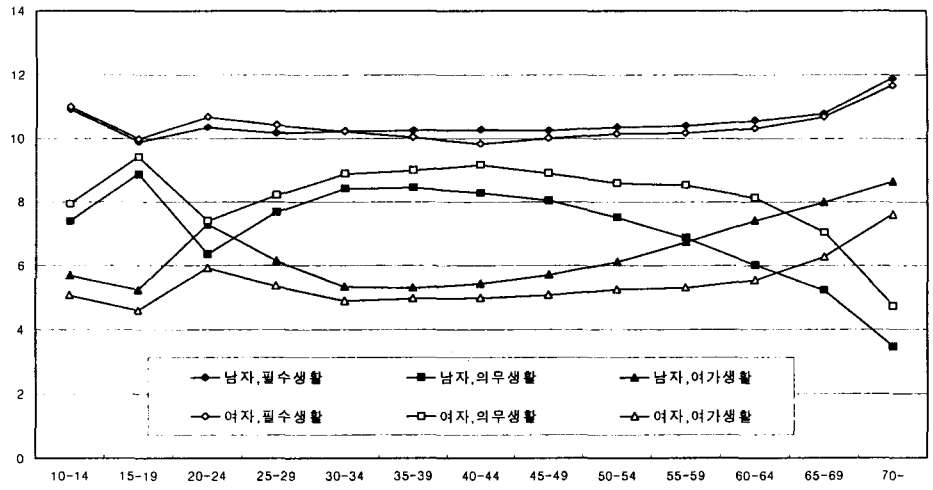
(단위 : 시간.분)

종합시간	생활시간	전체	남자	여자
균형생활시간	필수생활	10.20	10.20	10.20
	의무생활	8.00	7.30	8.20
	여가생활	5.40	6.10	5.20

필수생활에 10시간 20분, 의무생활에 8시간 그리고 여가생활에 5시간 40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필수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의무생활은 남자가 전체 균형생활시간 8시간과 비교하여 30분이 적으며 여자는 20분을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서는 전체에 비하여 남자가 30분을 더 사용하고 여자는 20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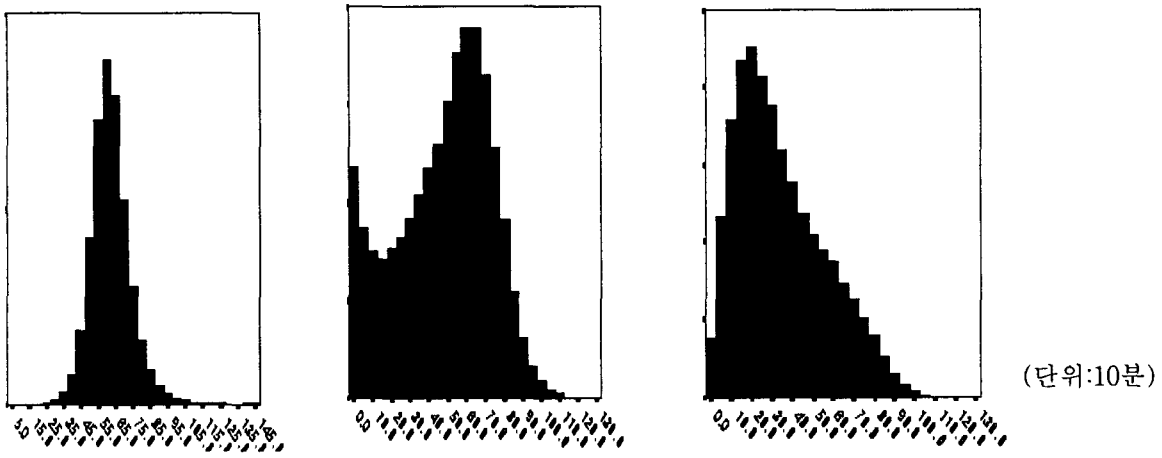
연령과 성별에 따라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연령이 15-19세에서 최소의 필수생활과 가장 많은 의무생활 그리고 적은 여가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들 연령은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대학입시와 관련한 교육의 현실을 어느 정도 보여 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수생활은 남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반면에 의무생활과 여가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무생활은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에 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여가생활은 남자보다 적은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각각의 생활지표별 생활시간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히스토그램을 작성해 보았다.



(그림 2) 연령별, 성별 하루 평균 사용시간

필수생활은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정규분포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의무생활의 구조는 하루 중에서 의무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전체 조사자 가운데 3,263명)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263명 가운데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일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7% 정도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 특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로 70세 이상의 노인층(21%)과 학생연령인 10-29세(33%)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조사자도 669명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평일에 평균적으로 11% 정도이며 일요일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하루의 생활은 요일특성(평일, 토요일, 일요일),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고려한 균형생활지표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하여 생활패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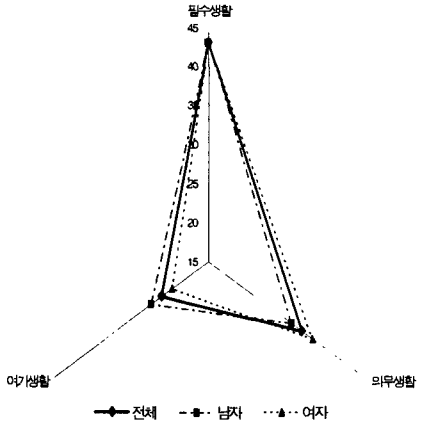


(그림 3) 생활시간 각각에 대한 히스토그램

3.2 균형생활지표의 측정

3.2.1 균형생활지표 측정값의 정의

균형생활시간을 지표화 할 수 있는 값으로써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하루 24시간에 대한 각각의 생활시간인 (필수생활, 의무생활, 여가생활)의 비율을 균형생활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하루 24시간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생활시간이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 나타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지표값으로 나타냄으로서 보다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요일과 성별 등에 따라서 시간활용이 다양하다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들 특성이 나타나도록 균형생활지표값을 각각 계산하였다.



(그림 4) 성별 하루 평균 생활시간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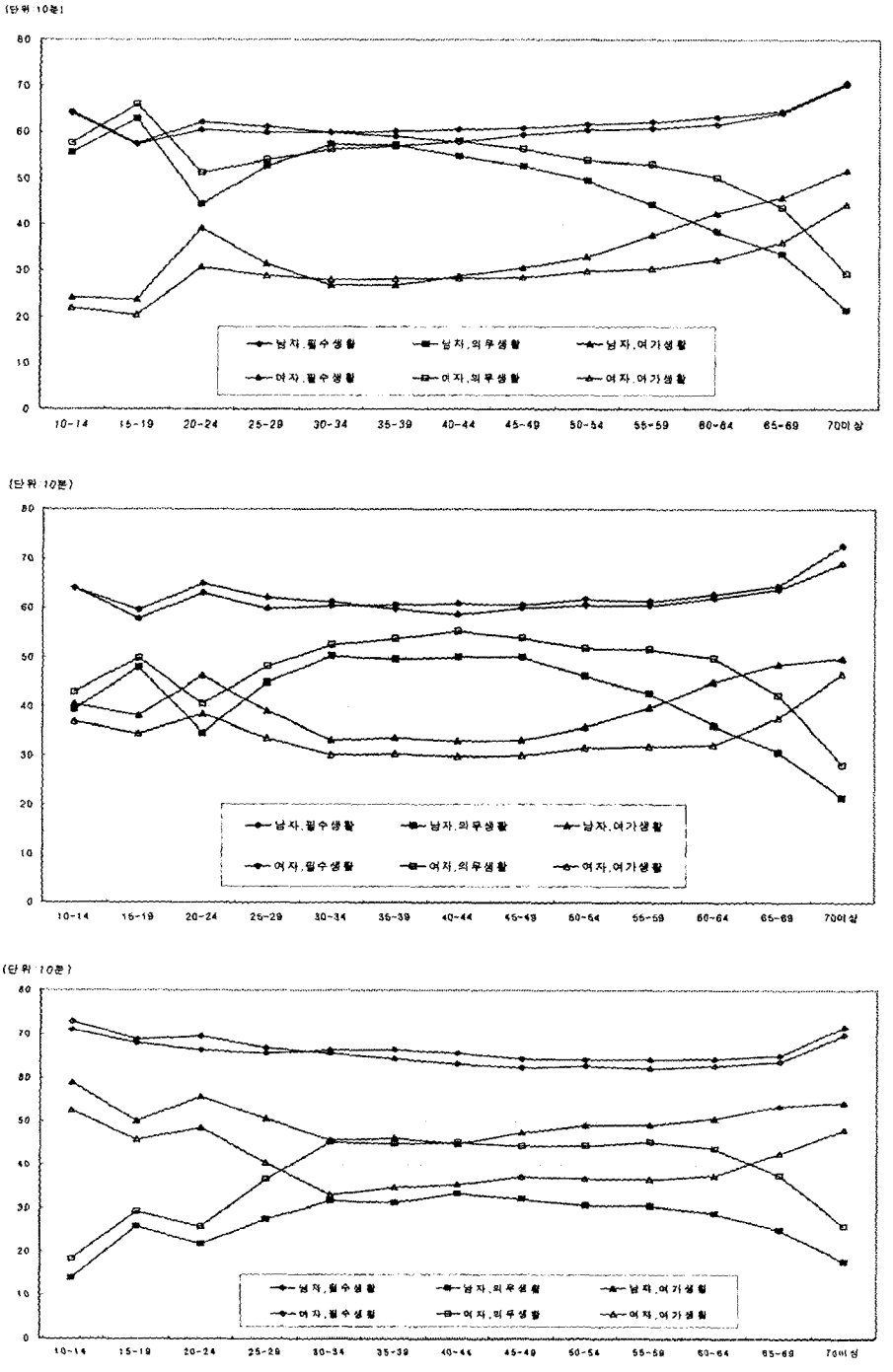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표본에서 조사된 10세 이상 우리 나라 국민들의 균형생활지표 (필수생활, 의무시간, 여가생활)의 측정값은 (43, 33, 24)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균형생활지표 (필수생활, 의무생활, 여가생활) 값은 (43, 31, 26)이며, 여자의 경우는 (43, 35, 22)이다. (그림 4)는 균형생활지표값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3.2.2 요일별, 성별 균형생활지표 측정

연령별, 요일별, 성별로 생활지표를 측정한 것이 (그림 5)이다. 평일(월요일-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생활하는 국민들의 생활패턴을 성별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평일과 토요일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생활시간의 패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일요일은 의무생활과 여가생활의 비중이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는 의무생활에 할애하는 시간이 현저히 감소하며 여가생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일요일은 평일에 비해 의무생활과 여가생활에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표 4>와 <표 5>는 각각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연령별, 요일별로 균형생활지표 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본에서 조사된 10세 이상의 균형생활지표 (필수생활, 의무생활, 여가생활) 값은 (43, 33, 26)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일에는 (42, 37, 21), 토요일에는 (43, 32, 25), 그리고 일요일에는 (46, 23, 31)로 각 요일별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다. 특히 일요일 성별에 따라서 여가생활지표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는 31~41 정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자의 경우는 23~37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그다지 여유로운 생활지표를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세 이상의 국민들의 일요일 여가생활의 지표가 31인 것과 비교하면, 여자들의 경우 일과는 별도로 가사부담의 의무생활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요일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의무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연령으로는 30세부터 시작하여 거의 55세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 나라 여성들은 육아에서 시작하여 자녀

들의 결혼 전까지는 평균 33에 비하여 훨씬 많게 의무생활에 자신의 생활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이러한 차이는 3-요인(연령, 성별, 요일 특성)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균형생활지표 각각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p=0.000), 필수생활에서 성별*요일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398).



[평일]

[토요일]

[일요일]

(그림 5) 연령별, 요일별, 성별에 따른 균형생활지표

<표 4> 연령별, 요일별 균형생활지표 측정-남자

연령	균형생활지표	전체	평일	토요일	일요일
10세이상	필수생활	43	42	43	46
	의무생활	33	37	32	23
	여가생활	26	21	25	31
10-14세	필수생활	45	45	44	49
	의무생활	31	39	27	10
	여가생활	24	17	28	41
15-19세	필수생활	41	40	40	47
	의무생활	37	44	33	18
	여가생활	22	17	27	35
20-24세	필수생활	43	42	44	47
	의무생활	26	31	24	18
	여가생활	30	27	32	35
25-29세	필수생활	42	42	44	46
	의무생활	32	37	24	19
	여가생활	26	22	32	35
30-34세	필수생활	43	42	42	46
	의무생활	35	40	35	22
	여가생활	22	19	23	32
35-39세	필수생활	43	42	42	46
	의무생활	35	40	34	22
	여가생활	22	19	23	32
40-44세	필수생활	43	42	42	46
	의무생활	35	38	35	23
	여가생활	23	20	23	31
45-49세	필수생활	43	42	42	45
	의무생활	34	37	35	22
	여가생활	24	21	23	38
50-54세	필수생활	43	43	43	45
	의무생활	31	34	32	21
	여가생활	26	23	25	34
55-59세	필수생활	43	43	43	45
	의무생활	29	31	30	21
	여가생활	28	26	28	34
60-64세	필수생활	44	44	44	45
	의무생활	25	27	25	20
	여가생활	31	29	31	35
65-69세	필수생활	45	45	45	45
	의무생활	22	23	21	17
	여가생활	33	32	34	37
70세이상	필수생활	50	49	50	50
	의무생활	14	15	15	12
	여가생활	36	36	35	38

<표 5> 연령별, 요일별 균형생활지표 측정-여자

연령	균형생활지표	전체	평일	토요일	일요일
10세이상	필수생활	43	42	43	46
	의무생활	33	37	32	23
	여가생활	26	21	25	31
10-14세	필수생활	46	45	44	51
	의무생활	33	40	30	13
	여가생활	21	15	26	37
15-19세	필수생활	42	40	41	48
	의무생활	39	46	35	20
	여가생활	19	14	24	32
20-24세	필수생활	44	43	45	48
	의무생활	31	36	28	18
	여가생활	25	21	27	34
25-29세	필수생활	43	42	43	47
	의무생활	34	37	34	25
	여가생활	22	20	23	28
30-34세	필수생활	43	42	43	46
	의무생활	37	39	36	31
	여가생활	20	19	21	23
35-39세	필수생활	42	41	42	45
	의무생활	37	40	37	31
	여가생활	21	20	21	24
40-44세	필수생활	41	40	41	44
	의무생활	38	40	38	31
	여가생활	21	20	21	25
45-49세	필수생활	42	41	42	43
	의무생활	37	39	37	31
	여가생활	21	20	21	26
50-54세	필수생활	42	42	42	44
	의무생활	36	37	36	31
	여가생활	22	21	22	26
55-59세	필수생활	42	42	42	43
	의무생활	36	37	36	31
	여가생활	22	21	22	25
60-64세	필수생활	43	43	43	44
	의무생활	34	35	35	30
	여가생활	23	22	22	26
65-69세	필수생활	44	45	44	44
	의무생활	29	30	30	26
	여가생활	26	25	26	30
70세이상	필수생활	49	49	48	49
	의무생활	20	20	20	18
	여가생활	32	31	33	33

3.2.3 학생별 균형생활지표 측정

15-19세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일에는 의무생활이 다른 생활지표에 비하여 가장 큰 지표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표 6>에서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인 경우에서 가장 큰 지표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별 균형생활지표를 살펴보면 의무생활의 시간 할애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계속 증가하다가 대학생은 중학생의 의무생활 지표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대학입시라는 목표로 인하여 의무생활과 여가생활을 10세 이상의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교육 정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듯하다. 대학생은 오히려 중·고등학생의 의무생활 시간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인 경우의 남자는 의무생활에서 38로 여자의 34에 비해 많은 학습시간을 필수시간에서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생의 남자 필수시간은 재학생 시기 중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생의 남자인 경우, 취업과 관련한 성취도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은 학습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가생활보다는 필수생활에서 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여자 대학원생들은 필수생활에 남자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생활을 볼 때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적은 반면 대학생들의 여가생활은 초등학생보다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의무생활에서 남자는 28~42 정도를 나타나지만, 여자인 경우는 30~44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학생인 경우라도 여자인 경우는 학습뿐만이 아니라 가사의 역할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00).

<표 6> 학생별 균형생활지표 측정

학력	성별	균형생활지표 측정		
		필수생활	의무생활	여가생활
10세이상		43	33	23
재학생	남자	43	35	22
	여자	43	37	20
초등학생	남자	47	28	25
	여자	47	30	23
중학생	남자	44	34	22
	여자	44	37	19
고등학생	남자	40	42	18
	여자	40	44	16
대학생	남자	42	31	27
	여자	43	32	25
대학원생	남자	39	38	23
	여자	43	3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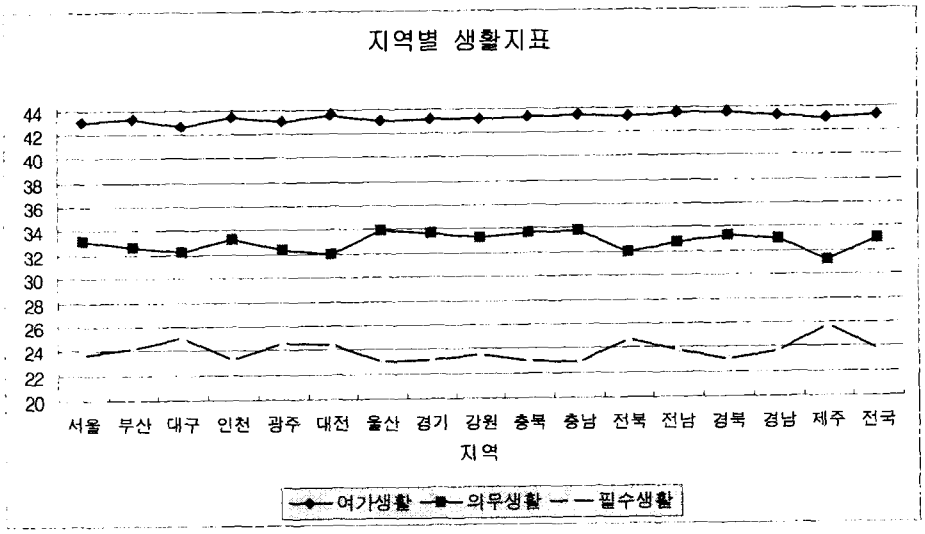
3.2.4 지역별 균형생활지표 측정

지역별로 국민들의 균형생활지표 벡터를 나타낸 것이 (그림 6)이다. 필수생활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의무생활과 여가생활에서는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절에서는 연령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7>는 지역별, 성별로 생활지표를 살펴본 결과이다. 남자의 경우 의무생활이 많으면서 여가생활이 적은 곳은 인천, 울산, 경기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의무생활이 많으면서 여가생활이 적은 곳으로는 충북, 충남, 경북지역으로 나타났다. 의무생활과 동시에 여가생활을 고려하여 비교할 때 의무생활이 가장 많으면서 여가생활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의 여자와 충북의 여자인 반면, 의무생활이 가장 적으면서 여가생활이 가장 많은 곳은 전북지역의 남자와 제주지역의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은 지역별로 생활하는 국민들의 생활패턴을 연령에 따라서 생활지표를 살펴본 결과이다. 의무생활이 가장 높은 곳이 10대는 울산, 20대는 경기, 울산, 30대는 서울, 경기, 강원, 40대는 경기, 인천, 충남, 50대는 충북, 60대 이상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무생활이 가장 적은 곳은 10대는 경기, 20대는 전북, 30대는 전북, 40대는 제주, 50대는 대전, 울산 60대 이상에서는 부산, 인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30~40대는 수도권지역에서 의무생활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와 제주지역에서는 의무생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마찬가지로 지역과 연령 그리고 지역과 성별에 대한 효과가 균형생활지표 각각에 대해서 2-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00$).



(그림 6) 지역별 균형생활지표

<표 7> 지역별, 성별 균형생활지표 측정

지역	성별	균형생활지표 측정		
		필수생활	의무생활	여가생활
전국	남자	43	31	25
	여자	43	34	22
	계	43	33	24
서울	남자	43	33	25
	여자	43	34	23
	계	43	33	24
부산	남자	43	31	26
	여자	43	34	23
	계	43	33	24
대구	남자	43	31	26
	여자	43	33	24
	계	43	32	25
인천	남자	43	33	24
	여자	44	34	23
	계	43	33	23
광주	남자	43	31	26
	여자	43	33	24
	계	43	32	25
대전	남자	43	31	26
	여자	44	33	23
	계	44	32	24
울산	남자	43	33	24
	여자	43	35	22
	계	43	34	23
경기	남자	43	33	24
	여자	43	34	23
	계	43	34	23
강원	남자	43	31	26
	여자	43	35	22
	계	43	33	24
충북	남자	43	32	25
	여자	43	36	21
	계	43	34	23
충남	남자	44	32	24
	여자	43	35	21
	계	43	34	23
전북	남자	44	28	28
	여자	43	35	22
	계	43	32	25
전남	남자	44	30	26
	여자	43	35	22
	계	44	33	24
경북	남자	44	31	25
	여자	44	35	21
	계	44	33	23
경남	남자	43	31	26
	여자	43	35	22
	계	43	33	24
제주	남자	44	28	28
	여자	43	34	24
	계	43	31	26

<표 8> 지역별, 연령별 균형생활지표 측정

연령별	지역별	균형생활지표 측정		
		필수생활	의무생활	여가생활
10대	서울	43	36	21
	부산	43	36	21
	대구	43	35	22
	인천	44	34	22
	광주	43	35	22
	대전	43	36	21
	울산	43	37	20
	경기	44	33	23
	강원	43	36	21
	충북	44	35	21
	충남	44	36	20
	전북	43	34	23
	전남	44	35	21
	경북	44	36	21
	경남	43	36	21
	제주	44	34	23
	전국	43	35	21
20대	서울	43	32	25
	부산	44	31	26
	대구	42	32	26
	인천	44	32	25
	광주	43	32	25
	대전	44	31	25
	울산	43	33	24
	경기	43	33	23
	강원	44	32	24
	충북	43	32	25
	충남	43	31	26
	전북	43	29	28
	전남	43	31	26
	경북	44	30	26
	경남	44	31	25
	제주	43	30	27
	전국	43	31	25
30대	서울	43	37	20
	부산	42	36	21
	대구	42	36	22
	인천	43	38	20
	광주	43	35	23
	대전	43	35	22
	울산	42	35	23
	경기	42	37	21
	강원	42	37	21
	충북	43	36	22
	충남	42	37	21
	전북	42	34	23
	전남	42	35	23
	경북	43	37	20
	경남	42	36	21
	제주	42	35	24
	전국	42	36	21

연령별	지역별	균형생활지표 측정		
		필수생활	의무생활	여가생활
40대	서울	42	36	22
	부산	42	36	22
	대구	42	35	23
	인천	42	37	21
	광주	41	36	23
	대전	43	35	22
	울산	42	36	23
	경기	42	37	21
	강원	42	36	22
	충북	43	36	21
	충남	42	37	21
	전북	42	35	23
	전남	42	36	23
	경북	42	36	22
	경남	42	36	22
	제주	41	34	25
	전국	42	36	22
50대	서울	43	32	25
	부산	43	32	25
	대구	42	32	26
	인천	43	32	25
	광주	43	33	25
	대전	43	30	27
	울산	45	30	25
	경기	42	34	24
	강원	42	33	25
	충북	42	36	22
	충남	43	35	22
	전북	44	33	23
	전남	43	34	23
	경북	43	34	23
	경남	42	34	24
	제주	43	31	26
	전국	43	33	24
60세 이상	서울	45	20	34
	부산	47	19	34
	대구	46	20	34
	인천	46	19	35
	광주	47	20	33
	대전	47	20	33
	울산	46	23	31
	경기	46	24	30
	강원	45	27	28
	충북	45	27	27
	충남	46	27	27
	전북	45	28	27
	전남	46	27	27
	경북	46	27	27
	경남	46	25	29
	제주	46	25	30
	전국	46	24	30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하루 24시간을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125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조사한 생활시간조사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시간 구조를 파악하였다. 생활시간을 3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여 간편하고 종합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균형생활지표를 정의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별, 요일별, 재학생별, 지역별에 따라 생활시간 구조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비교 항목으로써 연령과 성별 그리고 요일 등을 구분한 것은 데이터의 탐색에 의하여 특성화되는 몇몇의 특징을 뽑아낸 것이다. 이로써 우리 나라의 균형 생활지표를 정의하여 생활시간 비교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후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 좀 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은 평균적인 값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국민의 바람직한 생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남자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필수생활에 43, 의무생활에 31 그리고 여가생활에 26의 비중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그에 반해 여자는 필수생활에 43, 의무생활에 35 그리고 여가생활에 22를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별로는 재학생의 남학생은 필수생활에 43, 의무생활에 35 그리고 여가생활에 22를 할애하며, 여학생은 43, 37, 20을 할애한다. 특히 고등학생인 경우는 의무생활에 할애하는 비중이 다른 두 생활보다도 높은 남학생은 42, 여학생은 44 이었다.

그리고 요일별,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비중을 살펴보면, 일요일에 남자인 경우는 의무생활 시간의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며(10~23 정도 할애) 그 시간을 여가생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인 경우에는 의무생활에서 그다지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으며(13~31), 줄어든 부분은 필수생활의 수면과 여가생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토요일의 시간활용 패턴에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그다지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의무생활에의 비중이 평일에 비하여 약간 줄어드는 경향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의무생활과 동시에 여가생활을 고려하여 비교할 때 의무생활이 가장 많으면서 여가생활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의 여자와 충북의 여자인 반면, 의무생활이 가장 적으면서 여가생활이 가장 많은 곳은 전북지역의 남자와 제주지역의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중에서 경제활동에 왕성하게 참여할 수 있는 20대가 가장 적게 의무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60대 이상의 연령을 제외한 연령대중에서 20대가 여가생활을 가장 많이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30-40대는 수도권 지역에서 의무생활이 가장 많은 반면, 중소도시와 제주지역에서는 의무생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에 대한 통계적 추론은 균형생활 각각의 지표에 대하여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술적인 부문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는 필수생활에서도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 즉, 표본규모가 4만명 이상으로 매우 크다. 이와 같이 표본규모가 큰 경우에는 평균의 차가 극히 작을지라도 표본오차가 작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국민들의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형태는 필수생활을 생활지표로 볼 때 43의 비중을 갖고 있으며, 요일과 성별, 연령, 지역별에 따라서 의무생활과 여가생활에는 많은 차

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생활지표로써 필수생활, 의무생활 그리고 여가생활을 정의하였지만 각각의 범주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검토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균형생활지표 측정을 근거로 점수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균형적인 삶의 방식에 대하여 100이라고 정의하였지만, 각 개인의 특성(대표적인 특성)에 의하여 점수변화가 어떻게 구별화 될 수 있는 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다른 국가 혹은 지역, 개개인의 비교를 고려할 때, 연구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참고문헌

[1] 김선희 (1989). 도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와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7(1).

[2] 김영숙, 김지현 (2000). 대학생의 생활시간구조분석,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21권 2호, 389-404.

[3] 한국방송공사 (1996). 1995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4] 통계청 (1999). 생활시간활용조사 보고서

[5] 통계연수부 (2001a). 대학교수통계워크숍

[6] 통계연수부 (2001b). SPSS 기본

[7] 손애리 (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조사연구」, 제2권 1호, 135-148.

[8] Bevans, G. (1913). How working man spent their time, Columbia University Press.

[9] Hitoshi Mikami (1999). Time Use Survey in Japan, *Seminar on time use survey.*

[10] Robinsons, J. O. (1977). How American Use Time, New York, Prager Publisher.

[11] Szalei, A.,(ed) (1972). The Use of Time: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ntries, The Hague, Paris Mouton.

[12] 伊藤セツ, 天野寛子, 森ます美, 大竹美登利 共著(1983). 生活時間, 東京, 光生館.

[2003년 5월 접수, 2003년 11월 채택]